

Abstract Type : Oral Presentation
Abstract Submission No. : F-008317

Manpower, Task Performance and analysis of Organ Transplantation Coordinators in Korea

Jiyeon Park¹, sun young Son², man ki Ju³, Seung-Heui Hong⁴, Hyung Sook Kim⁵, Suhee Kim⁶

¹Department of Organ Transplant Center,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t. Mary's Hospital, Republic of Korea

²Department of Organ Transplant Center, Gangnam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³Department of 외과, Gangnam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⁴Department of Organ Transplant Center, Samsung Medical Center, Republic of Korea

⁵Department of Hemodialysis center,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t. Mary's Hospital, Republic of Korea

⁶Department of School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Introduction: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을 시작한 이래로 이식 건수와 수준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복잡한 장기기증과 이식 과정 조율을 위해 장기이식 코디네이터가 감당해야 할 업무가 증가하였고 뇌사자 평가, 가족 상담 등의 직접 간호 업무와 법과 규정의 변화에 따른 행정업무가 보다 다양해지면서 업무의 전문성과 난이도가 높아져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코디네이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과정도 없는 실정으로 임상 실무에서 업무의 어려움을 느끼며, 이직률(Turnover)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에 효율적인 업무의 조정 능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국내의 뇌사자 관리, 장기이식 환경에 종사하는 장기이식코디네이터의 인력 현황과 업무 분석을 하고자 시도되었다.

Methods: 본 연구는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의 인력 현황과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및 수행빈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의 인력 현황과 직무분석을 위하여 Developing A Curriculum(DACUM) 법을 이용하여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전수를 모집단으로 온라인 설문에 응하는 대상으로 조사하여 코디네이터의 인력 현황과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및 수행빈도를 분석하였다.

Results: 7월 7일부터 8월 4일까지 시행된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51명으로 남자가 5.9%(3명), 여자가 94.1%(48명)였다. 평균 연령은 40.45세(범위: 28~59세)이며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가 49.0%로 가장 많았고, 근무기관은 HOPO가 74.5%, 이식의료기관이 17.6%,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7.8% 순이었다. 코디네이터 근무 경력은 평균 94.20개월, 약 7년 10개월(범위: 3~291개월)이었으며, 90.2%가 전담으로 코디네이터 업무를 한다고 하였다. 수혜자 관리의 직무 중요도에 대하여 '뇌사 이식대상자 선정시 이식의와 협의'가 3.96점, '퇴원 교육과 정보 제공'이 3.93점으로 중요도 점수가 높았다. 기증자 관리에서는 '뇌사 추정자의 가족 상담'과 '뇌사기증 가족 동의 확인'이 4점, '뇌사 추정자의 의학적 상태 및 정보 확인'과 '뇌사 추정자의 신체사정하기'가 3.97점으로 그 다음으로 중요도 점수가 높았다. 수혜자 관리의 직무 난이도에 대하여 '수혜자의 의학적 상태 평가'와 '뇌사이식대상자의 수술준비 조정'이 3.20점, '이식 전 검사진행 조정'과 '뇌사 이식대상자 선정시 이식의와 협의'가 3.07점으로 난이도 점수가 높았다. 기증자 관리에서는 '뇌사자

이송'가 3.37 점, '뇌사 추정자의 가족 상담'과 '뇌사자 발생병원과 이송 관련업무 조정'이 3.34 점으로 난이도 점수가 높았다.

Conclusion: 본 연구의 결과물은 업무의 매뉴얼화의 기초자료가 되고, 표준교육과정의 기초자료가 되어 인력소진 예방을 위한 코디네이터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